

• 윤리와 사상 •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②	5	③
6	③	7	②	8	①	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①	18	⑤	19	②	20	⑤

해설

1.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이해하기

글쓴이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검토를 통해 성찰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2. [출제의도]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특징 이해하기

그림의 ㉠은 윤리 사상, ㉡은 사회사상이다.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각각의 고유 영역을 지니고 상호 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다.

3.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인(仁)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를 회복할 것[克己復禮]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인을 가까운 사람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효제(孝悌)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제시하였으며, 인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충서(忠恕)를 제시하였다.

4.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 따라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노자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가지고 있는 물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며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이 사회에서 백성들은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초월하여 소박하게 살아간다. 이를 위해 노자는 무위(無爲)의 다스림을 강조하였다.

5. [출제의도]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이해하기

대승 불교는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깨달음도 중시하였다.

[오답풀이] ㉢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 부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아라한의 특징이다.

6.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은 불교이다.

[오답풀이] ① 불교는 누구나 부처에 이를 수 있는 근본 성품인 불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② 불교는 '나라는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불교는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의 삼독(三毒)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⑤ 불교는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선한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선한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대표적인 수양 방법으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집의(集義)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극히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인浩然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浩然지기를 갖출 때 대장부(大丈夫) 또는 대인(大人)이라는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ㄴ. 선한 마음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단서는 사덕(四德)이 아닌 사단(四端)이다.

8. [출제의도] 위·진 시대의 현학 이해하기

그림의 (가)는 현학(玄學)이다. 현학은 노장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를 중시하는 논의인 청담(淸談)을 제시하였다.

9.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이해하기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성(性)은 곧 이(理)라고 하였으며 마음이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理)라고 하였으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안에 모든 이치가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인욕(人欲)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ㄴ. 주희는 지(知)와 행(行)은 서로 의존하지만 선후를 논한다면 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신기선과 이항로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신기선, 을은 이항로이다. 신기선은 유교적 가치 체계는 지키면서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장하였다. 이항로는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켜야 하며 서양 문물과 사상은 나라에 해가 되기 때문에 모두 배척해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원효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일심(一心)에서 보면 연기법에 따라 변화하는 현실[生滅門]과 변화하지 않는 진리[眞如門]는 실상 다르지 않으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ㄴ. 네 번째 입장. 원효는 다양한 종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체로서의 조화를 꾀할 것을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근거하여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며 사단은 순선(純善)하나 칠정은 가선가악(可善可惡)하다고 보았다.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근거하여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연원이 같고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이황은 부정, 이이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이황과 이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3.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이 도덕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化性起僞]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며[齊物], 주위 환경에 의해 본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장자는 일체의 대립과 구별에서 벗어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인 물아일체(物我一體)에 도달할 것을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용수와 세친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중관 사상을 대표하는 용수, 을은 유식 사상을 대표하는 세친이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모두 대승 불교에 속하는 사상으로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서 끊임 없이 생멸하기 때문에 자성(自性)이 없이 공(空)하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중관 사상은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으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② 중관 사상은 중도(中道)를 통해 유(有)에 집착하는 관점과 무(無)에 집착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유식 사상은 불변의 본질을 가진 객관적 현상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식(識)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유식 사상은 요가 수행을 통해 식을 변화시켜 집착과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성을 기호(嗜好)로 보았고, 사단(四端)을 실천함으로써 사덕(四德)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自主之權]을 지닌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정약용은 인간은 영지(靈知)의 기호와 형구(形軀)의 기호를 모두 지니고 있지만 동물은 형구의 기호만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ㄴ. 정약용은 육구는 생존과 도덕적 삶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동학, 원불교, 증산교 사상 이해하기

(가)는 동학, (나)는 원불교, (다)는 증산교이다. 동학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보았다. 원불교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모든 중생의 청정한 마음을 상징하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를 중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불공을 드리는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증산교는 무속 신앙과 유·불·도 사상을 재해석하여 만든 민족 종교로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과 다른 이와 더불어 사는 상생(相生)을 강조하였다. 동학, 원불교, 증산교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혜능, 을은 지눌이다. 혜능은 사람이 자신의 불성(佛性)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돈오(頓悟)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돈오하면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부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또한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혜능과 지눌은 모두 경전에 얽매는 것을 비판[不立文字]하면서 진리는 경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教外別傳]이라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정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仁)을 바탕으로 한 왕도(王道)정치를 강조하며 백성을 저버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군주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였다. 또한 맹자는 백성은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보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禮)를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순자는 덕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동양 사상의 자연관 이해하기

동양 사상에서는 만물을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유기적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보는 공생과 공존의 자연관을 제시하였다.